

生活樣式類型과 衣服評價基準에 관한 研究

김 미 영 · 이 은 영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Life Style Types and Clothing Evaluative Criteria

Mi Young Kim · Eun Young Rhee

Dept. of Clothing, Kyeung Won Univ.,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
(1991. 8. 30 접수)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yle types and clothing evaluatie criteriria. Social wear was selected according to the defined time, place, and occasion¹⁾. The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640 housewives during the fall of 1988.

The research problems were as follows:

1. To segment the target according to their life styles, and to profil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tegorized life style types.
2. To determine the differnces in the clothing evaluatie criteria among the various life style types.

The result were as follows:

1. Five life style types were defined. They were the Achievement oriented type, the Active-leisure type, the Material oriented type, Conservative-frugal type, and the Passive-stagnant type.
2. The differences in consumer preferences at the element level evaluative criteria including color, fiber content, fabric construction, fabric design, and classes of clothes among the five life style types were also analyzed revealing partial significance.

I.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생활양식의 개념이 소비자행동연구에 도입된 것은 1963년 미국 마케팅학회에서 이 개념이 정착,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으며, 최근들어 우리 나라의 의류학 분야에서도 생활양식이 의류소비자행동연구에 도입되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소비자의 개념이 의복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단순한 구매자 내지 소비자라는 개념에서 의복을 자신의 생활양식과 상호 연

관시켜 연출하는 '생활자'라는 개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생활 전체에 대한 다면적인 측면에서 파악해야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생활 전체에 대한 다면적인 측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설명모델로 생활양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종래에 의류관련업체에서 사용된 시장세분화기준은 주로 성별, 연령별과 같은 인구통계적 기준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생활환경의 변화와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에 따라 인구통계적 기준만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분석,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동일한 성별과 동일한 연령층의 집단이라도 생활양식에 따라 상이한 상품선택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세분화기준으로 생활양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1980년대 이후로 생활양식이 급속히 변화하여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국가의 경제발전에 의한 소득의 향상, 과시적 소비성향, 여가시간의 증가, 젊은층의 영향력 증가, 여성의 지위상승과 활동영역의 확대, 대중전달매체의 발달, 칼라 T.V의 보급, 유통구조의 다양화와 현대화등의 영향은 소비자들의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수반하면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1980년대 이후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다양화는 소비자들의 의복 구매시의 평가기준에 영향을 줄 것이다. Engel, Kollat과 Blackwell¹⁾의 소비자 행동과정을 설명하는 모델에서도 문화적 규범과 가치관, 준거집단, 가족등의 외부의 영향에 의해 생활양식이 형성되며 이 생활양식이 평가기준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Cassil²⁾과 손미영³⁾의 연구에서는 이런 생활양식과 의복평가기준과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의복평가기준도 변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생활양식에 따른 의복평가기준에 대한 연구가 새로이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양식에 따른 의복평가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에서의 문제점은 의복평가기준에 대한 이론적 개념과 체계가 미비한 상태로 학자마다 개념과 체계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학문적인 관점에서 의복평가기준에 대한 이론적 틀의 구성이 필요하므로 본인⁴⁾은 이전 연구를 통해 의복평가기준의 이론적 틀을 정리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이 틀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평가기준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의복

의 경우도 의복의 종류에 따라 의복 구매시의 평가기준은 차이가 날 것이다. 최근의 의류학에서의 연구경향도 일반적으로 모든 의복을 똑같은 관점에서 보고 연구하기 보다는 의복의 종류에 따라 분리시켜 연구하고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연구대상의복을 선정할 때 한 가지 분류기준을 사용하여 선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분류기준을 사용하여 선정하고 있거나, 분류기준을 명백히 규정해 주고 있지 않으며, 연구 결과의 적용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선정하고 있다^{2,5-8)}. 그러므로 연구대상의복을 선정할 경우 분류기준을 명백히 하여 한가지 분류기준을 사용하되 연구결과와 적용범위가 넓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생활양식과 이에 따른 의복평가기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연구대상의복선정시의 분류기준의 문제점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연구대상의복으로 연구의 적용범위가 넓은 때, 장소, 상황(time, place, occassion)의 착용상황에 따른 분류기준을 사용하여 낮에, 변화가에서, 사회적 모임시 입는 의복(social wear)을 선정하여 생활양식에 따른 의복평가기준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과정으로는 첫째,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생활양식, 생활양식과 의복평가기준의 관계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결과들을 조사하고 둘째, 생활양식에 따라 주부를 유형화시킨후, 생활양식유형별로 의복평가기준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이때 연구대상자는 가정내의 구매행동에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의복구매에 있어서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소비층인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II. 理論的 研究

1. 生活樣式

생활양식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서는 우선 생활양식의 개념을 살펴본 후 소비자들의 생활양식유형의 분류와, 의복과 관련된 생활양식의 차원에 관한 이론과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1) 生活樣式的 概念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자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도 상품을 자신의 생활양식과 상호 연관시켜 구성하는 '생활자'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생산업자들은 고객을 자기들의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소비하는 기계인 단순한 구매자 내지 소비자라는 개념

에서 생활 전체를 영위하는 생활자라는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생활양식에 대하여 Lazer⁹⁾, Moore¹⁰⁾, Levy¹¹⁾, Engel, Blackwell과 Kollat¹²⁾, 김동기¹³⁾등 여러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들의 정의에 따라 생활양식의 개념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양식은 생활의 구조적 측면인 생활의식, 생활행동, 가치관, 성격등의 복합물로 일차원적이 아니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둘째, 생활양식은 환경적인 요인인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셋째, 생활양식은 소비행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품의 구매, 소비유형에 반영된다.

네째, 생활양식은 미시적 차원인 특정 개인으로부터 거시적 차원인 사회 전체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원의 규모로 파악된다.

미시적 차원의 생활양식연구는 일반적 생활양식과 구체적인 상황이나 상품과 관련된 생활양식의 2가지 관점에서 측정될 수 있다. 측정방법은 일반적으로 A.I.O 법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시적 차원에서 주부들을 일반적 생활양식에 따라 세분화시키고자 한다.

2) 生活樣式類型的分類

여기에선 기존의 생활양식의 연구나 조사에서 소비자들의 일반적 생활양식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주부들의 생활양식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주부의 생활양식유형을 나눌 때 가장 많이 분류되고 있는 유형은 전통지향형(traditionalist)과 현대지향형(modernist)이다. 전통지향형이란 주부는 집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가사를 돌보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경우를 말하며 현대지향형이란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돌보며 다같이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혼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엔 주부들의 생활양식유형을 전통적인 가정이나 가사노동, 가족관계에 관한 차원만을 고려하여 분류한 유형에서 생활의 여러 가지 차원들을 고려하여 좀 더 세밀히 세분화시킨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부들의 생활양식유형을 표로 작성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생활양식유형을 생활의 여

<표 1> 주부의 생활양식유형

| 연구자 | 연구대상자 | 생활양식유형 |
|--|--------------------------|--|
| Reynold, Crask와 Wells(1977) ¹⁴⁾ | 주 부 | 전통지향형(traditionalist), 현대지향형(modernist) |
| Douglas와 Urban ¹⁵⁾ (1977) | 주 부 | 전통지향형(traditional), 자유지향형(liberalized) |
| Venkatesh ¹⁶⁾ (1980) | 주 부 | 전통지향형(traditionalist), 여성지향형(feminist), 중간형(moderates) |
| Stemm ⁷⁾ (1980) | 독신여성(single-again woman) | 전통적 역할지향형(traditional), 현대적 역할지향형(modern), 균형적 역할지향형(balanced) |
| 이차욱 ¹⁷⁾ (1983) | 주 부 | 소극침체형, 자기개발형, 경제추구형, 보수알뜰형, 유행추구형, 여유안정형 |
| 김경미 ¹⁸⁾ (1986) | 주 부 | 소극침체형, 건전안정형, 소극적개인주의형, 보수적 전통주의형, 개방적 유행추구형, 현실안정형, 건전절약형 |
| 박선영 ¹⁹⁾ (1986) | 주 부 | 절제사려형, 적극활동형, 현실주의형, 가족중심형, 전통보수주의형, 상포지향형, 안전정주의형, 정보탐색형, 자유진보형 |

러 가지 차원을 포함하여 유형화하는 경향은 있으나 의복행동과 관련된 일반적 생활양식의 차원에 따라 분류한 유형이 없으므로 의복행동과 관련된 일반적 생활양식의 차원에 따른 생활양식유형의 분류가 필요할 것이다.

3) 衣服과 관련된 生活樣式的 次元

생활양식은 다양한 하위차원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이런 하위차원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적합하고 타당성 있는 차원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이 의복을 대상으로한 연구이므로 의복과 관련된 생활양식의 차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전의 연구결과들에서 의복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일반적 생활양식의 차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傳統의 家庭志向性

전통적 가정지향성 차원과 의복구매행동과의 관계를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temm⁷⁾은 그의 연구에서 여성의 역할지향성이 의복구매시의 평가기준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연구결과를 보면 직장에서 착용하는 의복의 경우는 현대적 역할지향성이 실용성과 질(quality) 평가기준에

영향을 주며, 이 두 평가기준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모임시 착용하는 의복의 경우도 현대적 역할지향성이 실용성 평가기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Cassil²⁾의 연구에서 보면 전통적인 가정지향성 차원은 사회적 모임에서 입는 의복의 구매시 경제성 평가기준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적합성 평가기준과의 부적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나타났다.

손미영³⁾의 연구에서도 의복구매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는 생활양식 변인들을 추출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가사에 대한 관심이 제 2요인으로 두번째로 설명정도가 큰 것이었다.

(2) 自信感志向性

자신감지향성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성취욕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자아에 대한 자신감을 자아개념의 한 측면으로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하겠다²⁰⁾. 특히 의복은 이런 자아개념의 한 구성요소로서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확인되는 외모의 한 측면이며 자기에 대한 정체감, 기분, 태도를 전달하는 의미있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²¹⁾.

여러 연구들에서 자아개념과 소비자행동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2, 22~29)}. 즉 자아개념과 상품에 대한 지각이나 상품 이미지 사이의 일치 정도에 관한 연구와 자아개념과 소비자행동과의 일치 정도, 예를 들면 자신을 혁신주의자라고 지각하는 사람이 구매행동도 혁신적인 행동을 하는가하는 연구 등이 있으며, 자아개념의 한 측면인 자신감과 의복구매행동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도 있다. Cassil²⁾의 연구는 자신감과 의복평가기준과의 상관관계를 밝혀주고 있다.

(3) 餘暇活用志向性

여가시간을 취미활동, 문화·예술활동, 실내외스포츠활동, 레저활동, 사교활동 등으로 활용하는 성향을 말한다. 이러한 여가활용성향은 의복평가기준등 의복구매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Cassil²⁾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여행성향은 의복 구매시의 경제성 평가기준과 부적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미영³⁾의 연구에서도 실내 스포츠활동과 예술활동에 대한 관심은 의복구매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선³⁰⁾의 연구에서도 의복에 대한 태도가 다른 집단들 사이에서 사회참여성향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의복에 대해 혁신적이며 미를 추구하는 집단인 혁신적 심미추구형이 가장 사회참여성향이 높게 나타났

다.

(4) 物質志向性

물질지향성이란 부동산, 증권, 사업등에 흥미를 갖고 부를 축적하여 즐기고, 과시하는 성향이다. 이러한 물질지향성은 의복구매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Cassil²⁾의 연구에서도 부를 과시하여 소비하는 성향은 의복 구매시의 경제성 평가기준과 부적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원 선³⁰⁾의 연구에서도 의복에 대한 태도가 다른 집단들 사이에서 현대적 물질추구성향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손미영³⁾도 의복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양식 변인을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결과에서도 의복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양식 변인중에는 물질지향성과 관련이 있는 문항들이 나타났다.

(5) 節約志向性

절약지향성이란 가계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가사일을 손수하고 짜여진 예산하에서만 지출하여 근검절약하는 소극적 경제충실성향이다. 이러한 절약지향성도 의복구매행동에 영향을 주게되는데 손미영³⁾의 연구결과에서 의복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양식 변인중에는 절약지향성과 관련이 있는 문항들이 나타났다.

(6) 外貌志向性

외모지향성은 의복과 미용에 관한 관심으로 의복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성향으로 다음의 연구들에서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Cassil²⁾의 연구에서는 외모와 유행에 관계된 요인들은 의복 구매시의 적합성과 타가지향성 평가기준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경제성 평가기준과는 부적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 냈다. 손미영³⁾의 연구에서도 의복구매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는 생활양식의 차원으로 유행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제 1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유행에 대한 흥미가 높은 사람은 개성표현을 위주로 의복을 구매한다고 하였다.

(7) 美志向性

미지향성은 미를 중요시하는 태도나 예술에 대한 관심도를 말한다. 의복은 인체를 보호해 주는 기능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착용자의 장식욕구를 채워주는 미적인 특성이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미와 예술에 관한 관심도는 의복에서의 미적인 특성과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하겠다. 손미영³⁾의 연구는 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의복구매행동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의복과 관련된 생활양식의 차원

에 따라 주부들의 생활양식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2. 生活樣式과 衣服評價基準

생활양식과 평가기준과의 관계는 Engel, Kollat과 Blackwell³²⁾이 제시한 소비자행동모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문화적 규범과 가치관, 준거집단, 가족 등의 외부의 영향에 의해 생활양식이 형성되며, 이 생활양식이 평가기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평가기준은 생활양식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의복과 생활양식과의 관계를 보면 의복은 착용자의 환경 및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Silberman³³⁾, Sproles³⁴⁾, Kefgen과 Touchie-Specht³⁵⁾는 '의복은 단순한 물질적 객체가 아닌 생활양식의 표현물로서, 소비자의 생활양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Jarnow와 Judelle³⁶⁾도 의복에 나타나는 유행은 옷을 입는 방법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며 이는 한 시대의 사상과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생활양식과 평가기준, 의복과의 관계를 볼 때 소비자의 생활양식에 따라 의복 구매시의 평가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assil³⁷⁾은 생활양식과 의복평가기준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주고 있으며, 손미영³⁸⁾도 그의 연구에서 여성 기성복 구매시의 평가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양식 변인을 밝혀주고 있다. 그 외에 여러 연구들에서는 소비자의 생활양식유형을 분류하여 각 유형별로 의복행동의 특성을 밝혀주고 있다^{17,18,28,30)}.

III. 實證的 研究方法 및 節次

1. 研究問題

우선 연구문제 I에서는 의복과 관련된 생활양식 차원인 전통적 가정지향적 차원, 자신감지향적 차원, 물질지향적 차원, 절약지향적 차원, 외모지향적 차원, 미지향적 차원, 여가활용성 차원의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후 이 결과로 나온 요인을 가지고 연구대상자인 주부들을 유형화시키고자 한다. 다음에는 추출된 생활양식 차원과 인구조계적 변인을 가지고 생활양식에 따라 유형화시킨 집단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문제 II에서는 생활양식에 따른 의복평가기준³¹⁾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의복평가기준 중 추구이점수

준의 평가기준과 구성요소수준의 평가기준에 초점을 맞춰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구성요소수준의 평가기준으로는 스타일, 색채, 옷감(섬유와 조직)³²⁾, 무늬, 재단과 재봉, 부속품을 선정하였다. 이때 부가적인 관심으로 생활양식유형별로 구성요소수준의 의복평가기준들간의 중요도의 차이를 밝힌다. 또한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구성요소수준의 평가기준들을 생활양식유형별로 선호하는 스타일, 색채, 섬유, 조직, 무늬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2. 研究方法 및 節次

1) 測定道具

본 논문의 연구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측정 문항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 중에서 추출하였고 연구자가 몇 문항을 추가하여 1, 2차의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평정 척도법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문항의 타당도(validity)는 의류학 분야의 교수와 강사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고, 신뢰도(reliability)는 크론바하의 알파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항목들의 동질성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내적 일치성을 알아보았다. 의복평가기준 측정문항중 구성요소수준의 평가기준은 6가지 기준을 2개씩 쌍으로 하여 15개의 쌍을 만든 후, 각 쌍에 대하여 중요시하는 것을 2개중 1개를 택하게 하였다. 선택된 빈도수로 6가지 기준의 점수를 책정하였다. 구성요소수준의 평가기준 선호 특성은 의복의 유형별 선호도, 섬유의 유형별 선호도, 니트의 선호도, 무늬의 유무와 크기 및 종류별 선호도를 5점 평정 척도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색채의 선호도는 색감별로 서로 상반되는 색감을 표현하는 단어의 쌍을 7점 의미분척도로 측정하였다.

2) 研究對象衣服

연구대상의복은 때, 장소, 상황(time, place, occas-

註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의복평가기준은 김미영⁴⁾의 연구에서 사용된 의복평가기준의 이론적 틀의 개념을 도입하여 3가지 수준의 평가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註2) 1, 2차의 예비조사에서 피험자들이 섬유와 조직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모두 옷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편의상 2가지 개념을 합한 옷감으로 하였다.

sion)의 착용상황에 따라 가을과 겨울 사이에, 낮에, 번화가에서, 사회적 모임시 착용하는 의복(social wear)을 선정하였다.

3) 標本의 設計 및 資料募集

본 조사전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 60명을 대상으로 1988년 8월 1일~8월 15일과 1988년 10월 30일~11월 10일에 걸쳐 1, 2차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1988년 11월 5일~12월 10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표본의 설계는 사회경제적 계층별 분포를 고려하기 위하여 '전국 도시지역 토지시가지조사표'를 참고로 하여 서울시의 상류, 중류, 하류지역을 강남, 강북지역으로 각각 골라서 설문지를 상류지역 210부, 중류지역 360부, 하류지역 150부 배포하였다. 분석에는 모두 640부가 사용되었다.

4) 標本의 인구통계적 특성

표본의 대상인 주부의 연령분포는 30대와 40대 연령이 75.8%를 차지하고 있고, 학력은 고졸이 34.0%, 대졸이 34.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취업율은 25.7%이며 이 중 전문·기술직 종사자(30.7%)와 판매·서비스직 종사자(25.8%)가 가장 많으며, 전문직 종사자도 19.0%를 차지하고 있다. 월수입은 20만원~50만원 미만이 8%, 50만원~100만원 미만이 40.2%,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21.1%, 150만원~200만원 미만이 11.3%, 200만원대와 300만원 이상이 18.9%를 차지하고 있다.

5) 分析方法

첫째, 생활양식에 따라 연구대상을 유형화시키기 위하여 우선 생활양식을 요인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생활양식의 차원을 밝힌 후, 이 생활양식의 차원에 따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하였다. 이때 생활양식 요인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크론바하의 알파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은 유형화된 집단별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방법을 사용하였다^{37,38)}.

둘째,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의복평가기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판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부가적인 관심으로 생활양식유형별로 구성요소 수준의 의복평가기준들간의 중요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쌍체비교 t-검증(paired samples t-test) 방법을 사용하였다^{37,38)}.

IV. 分析結果 및 論議

1. 生活樣式에 따른 主婦의 類型化

본 절에서는 생활양식 변인을 요인분석하여 생활양식의 차원을 밝힌 후, 이 차원에 따라 주부를 유형화시킨 결과를 살펴보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生活樣式的 次元

생활양식의 차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여 6개의 요인을 선정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수는 scree-test를 하여 고유치(eigen value)가 차이를 뚜렷이 나타내지 않는 점에서 결정하였다.

다음에는 6개의 요인들을 varimax 방법에 의한 직교회전(orthogonal rotation)을 시켰으며 회전 결과에 의한 요인분석 결과와 요인별 문항 및 명칭은 <표 2>와 같

<표 2> 생활양식의 요인분석 결과와 요인별 문항 및 명칭
요인 I : 여가활용성

| 문 | 항 | 요인부하량 |
|---|---|--------|
| 문화활동(영화구경, 박물관관람, 음악회가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 0.7446 |
| 음악회나 미술전람회에 가는 것을 즐긴다 | | 0.6717 |
| 취미활동(서예, 지점도, 꽃꽂이, 등공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 0.6640 |
| 우리가족은 함께 외식이나 쇼핑을 자주 간다 | | 0.5581 |
| 스포츠(수영, 보물링, 에어로빅댄스, 테니스...)를 즐긴다 | | 0.5551 |
| 여가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 | 0.5191 |
| 돈보다 여가생활을 원한다. | | 0.4620 |
| 고 유 치 | | 3.9456 |
| 전체변량(%) | | 8.4702 |
| 누적변량(%) | | 8.4702 |

요인 II : 외모지향성

| 문 | 항 | 요인부하량 |
|--------------------------------------|---|--------|
| 외모를 멋있게 하는 것은 나의 생활과 활동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 | 0.7476 |
| 외모나 미용에 관심이 크다 | | 0.6890 |

| | |
|-------------------------------|---------|
| 옷을 잘 입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이다. | 0.6719 |
| 여성화장은 아름다움의 창조라고 부른다. | 0.6466 |
| 나는 내가 멋쟁이라고 생각한다. | 0.5802 |
| 패션잡지(멋, 보그, 엘레강스...등)를 자주 본다. | 0.4443 |
| 나는 예술적인 감각이 있다고 생각한다. | 0.4033 |
| 고 유 치 | 3.3482 |
| 전체변량(%) | 7.1877 |
| 누적변량(%) | 15.6579 |

요인 III : 자신감지향성

| 문 | 항 | 요인부하량 |
|---------------------------------|---|---------|
| 나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더욱 독립적이다. | | 0.8068 |
| 나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더욱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 | 0.7882 |
|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해도 자신있게 해 낼 수 있다. | | 0.7631 |
| 나는 개인적인 능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 | 0.7018 |
| 마음먹은 일이면 꼭 해내고야 만다. | | 0.6163 |
| 나는 계속 무언가 성취하려는 욕구를 갖는다. | | 0.6299 |
| 고 유 치 | | 3.2930 |
| 전체변량(%) | | 7.0692 |
| 누적변량(%) | | 22.7271 |

요인 IV : 전통적 가정지향성

| 문 | 항 | 요인부하량 |
|---|---|--------|
|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부인은 집에서 살림하는 가정이 이상적이다. | | 0.7273 |
| 남편이나 자녀를 통해 여성은 충분히 자신의 성취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 | 0.6714 |
| 대부분의 여성은 가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R* | | 0.6534 |
| 집안의 중요한 일은 가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0.5315 |
| 가사일은 나의 적성에 잘 맞는다. | | 0.5365 |
| 직장에 나가는 주부들도 가정에 있는 주부만큼 자녀들과 따뜻하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R* | | 0.5087 |
| 나는 약간 보수적인(전통적인) 취향과 습관을 가지고 있다. | | 0.4804 |
| 남편도 가정에 돌아와서 주부와 함께 가사를 돌보아야 한다. R* | | 0.3977 |

| | |
|---------|---------|
| 고 유 치 | 3.0505 |
| 전체변량(%) | 6.5487 |
| 누적변량(%) | 29.2758 |

요인 V : 절약지향성

| 문 | 항 | 요인부하량 |
|--------------------------------------|---|---------|
| 가사일을 손수함으로써 가계비를 절약하려고 한다. | | 0.6303 |
|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특별한 일은 못하지만 근검절약하면서 산다. | | 0.5896 |
| 작은 상품이라도 가격을 살펴본다. | | 0.5823 |
| 나는 저축하는 것과 저축이자를 되찾는 것을 좋아한다. | | 0.4725 |
| 나는 짜여진 예산하에서만 지출을 한다. | | 0.4610 |
| 집안 살림을 잘하는 것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아주 가치있는 일이다. | | 0.4543 |
| 가격할인 광고를 잘 살펴보는 편이다. | | 0.4533 |
| 정보를 모아서 상품에 대한 비교를 해 본 후 물건을 산다. | | 0.4252 |
| 가능하면 가정부나 파출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R* | | 0.3718 |
| 고 유 치 | | 2.8746 |
| 전체변량(%) | | 6.1710 |
| 누적변량(%) | | 35.4468 |

요인 VI : 물질지향성

| 문 | 항 | 요인부하량 |
|---|---|---------|
| 증권이나 부동산, 장사, 사업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다. | | 0.6473 |
| 재산증식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사를 자주하는 것도 좋다. | | 0.6457 |
| 즐겁고 부를 누리는 생활을 원한다. | | 0.5526 |
| 성공한 학자보다는 성공한 사업자가 좋다. | | 0.5118 |
|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쓴다. | | 0.3945 |
|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표를 사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주는 경우가 많다. | | 0.3850 |
| 고 유 치 | | 2.7266 |
| 전체변량(%) | | 5.8533 |
| 누적변량(%) | | 41.3001 |

R* : 역으로 환산된 문항이다.

다. 각 요인별 문항은 요인부하량이 0.35이상인 것만을 선정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요인에 포함시켰다.

<표 2>를 살펴보면 요인 I은 요인의 문항이 문화, 취미, 스포츠활동이나 가족동반 외출 등의 여가시간 활용에 관한 문항으로 여가활용성 요인이라고 하겠다. 요인 II는 요인의 문항이 옷이나 미용, 화장등의 외모에 관심을 갖고 외모를 중요시하는 성향에 관한 문항으로 외모지향성 요인이라고 하겠다. 요인 III은 요인의 문항이 자신감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독립성, 성취욕구에 관한 문항으로 자신감지향성 요인이라고 하겠다. 요인 IV는 요인의 문항이 가정내의 부부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와 주부들의 취업에 관한 태도에 관한 문항으로 전통적 가정지향성 요인이라고 하겠다. 요인 V는 요인의 문항이 가사일을 손수함으로써 가계비를 절약하여 근검절약하면서 살림을 하며 짜여진 예산하에서만 지출을 하는 절약성향에 관한 문항으로 절약지향성 요인이라고 하겠다. 요인 VI은 요인의 문항이 증권이나, 부동산, 장사, 사업등의 재산증식과 부를 누리는 생활과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문항으로 물질지향성 요인이라고 하겠다.

요인별 고유치와 전체변량 중의 백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6개 요인들의 값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요인별 설명력이 유사하다고 하겠다. 다음은 이상의 6개의 요인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크론바하의 알파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모든

요인이 알파계수 0.7이상으로 만족할 만하였다.

2) 生活樣式的次元에 따른 主婦의 類型化

생활양식에 따라 연구대상인 주부를 유형화시키기 위하여 앞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얻어낸 6개의 생활양식 차원을 가지고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하였다.

군집분석 결과에 따라 유형화시킬 집단의 수를 5개로 결정하고, 집단들의 생활양식의 특성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였다. 다음은 집단별로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본 후 각 집단들의 특성을 요약 정리하였다.

(1) 生活樣式類型別 特性 및 名稱

유형화된 5개 집단들의 생활양식의 특성을 살펴보고 명칭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집단별로 생활양식 차원의 표준화된 요인점수와 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 결과를 살펴보았다<표 3>. 이때 던컨테스트 결과는 생활양식의 차원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들의 요인점수에 따른 순위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각 집단의 생활양식 차원에 대한 순위와 표준화된 요인점수에 따라 생활양식의 특성을 살펴 본 후 명칭을 부여하였다.

<표 3>의 집단간 순위를 보면 집단 1은 여가활용성, 외모지향성, 자신감지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물질지향성도 2순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화된 요인점수도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 가정지향성과 절약지향성은 가장 낮게 나타

<표 3> 집단별 생활양식 차원의 표준화된 요인점수와 던컨테스트 결과에 따른 집단간 순위

| 생활양식 요인 | 1 | 2 | 3 | 4 | 5 |
|---------------------|--------------|-----------------|--------------|--------------|--------------|
| 여가활동성 집단간 순위 | 0.8698 1 | 0.0836 2 | -0.2961 3 | -0.5878 4 | -1.5011 5 |
| 외모지향성 집단간 순위 | 0.7798 1 | -0.3923 3 | 0.3529 2 | -0.2495 3 | -1.1890 5 |
| 자신감지향성 집단간 순위 | 0.9943 1 | -0.2255 3 | 0.3849 2 | -0.4192 4 | -1.3372 5 |
| 전통적 가정지향성 집단간 순위 | -0.5615 5 | -0.1286 3 | -0.0567 3 | 1.2994 1 | 0.5322 2 |
| 절약지향성 집단간 순위 | -0.3696 5 | -0.3347 5 | 0.6213 1 | 0.7152 1 | 0.1112 3 |
| 물질지향성 집단간 순위 | 0.4425 2 | -0.6176 3/4* | 0.8960 1 | -0.2589 3 | -0.4318 3 |

* 물질지향성차원에서 집단 2는 집단 5와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집단 4와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순위를 3/4로 표시하였다.

났고 표준화된 요인점수도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은 자신감이 있고, 외모에 대한 관심도 많으며, 활동적이고, 물질에 대한 관심도 많은 적극적인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취추구형'이라고 명칭을 부여하였다.

집단 2는 집단간 순위를 보면 자신감지향성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중간 정도로 나타났고, 절약지향성과 물질지향성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외모지향성과 전통적 가정지향성도 낮게 나타났다. 반면 여가활용성은 집단 1보다는 낮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준화된 요인점수도 자신감지향성, 절약지향성, 물질지향성, 외모지향성, 전통적 가정지향성은 음의 값으로 나타난 반면 여가활용성만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은 다른 성향보다 여가활용성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가활동형'이라고 명칭을 부여하였다.

집단 3은 집단간 순위를 볼 때 절약지향성과 물질지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모지향성과 자신감지향성도 집단 1보다는 낮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화된 요인점수도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여가활용성은 중간정도로 나타났으나 표준화된 요인점수는 음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적 가정지향성은 낮게 나타났고 표준화된 요인점수도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은 비교적 자신감이 있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특히 경제적 측면인 절약적 경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물질에 대한 관심이 많으므로 '물질추구형'이라고 명칭을 부여하였다.

집단 4는 집단간 순위를 볼 때 전통적 가정지향성과 절약지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화된 요인점수도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가활용성이나 외모지향성, 자신감지향성, 물질지향성은 낮게 나타났으며 표준화된 요인점수도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은 전통적 가정지향성과 절약지향성이 높아 보수적이면서 절약적 경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수절약형'이라고 명칭을 부여하였다.

집단 5는 집단간 순위를 볼 때 전통적 가정지향성이 집단 1보다는 낮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화된 요인점수도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절약지향성은 중간정도로 나타났으며 표준화된 요인점수도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가활용성과 외모지향성, 자신감지향성, 물질지향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고 표준화된 요인점수도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은 전통적 가정지향성이 높아 보수적이며 생활 전반에서 아주 소극적인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극침체형'이라고 명칭을 부여하였다.

(2) 生活樣式類型別 特性 要約

생활양식유형별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생활양식의 여가활용성 차원, 외모지향성 차원, 절약지향성 차원, 물질지향성 차원, 자신감지향성 차원, 전통적 가정지향성 차원의 각 문항별 특성을 살펴보고, 인구통계적 특성을 요약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成就追求型(구성비: 25.79%)

성취추구형은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성취욕도 높고 마음먹은 일이면 꼭 해 내려고 한다. 외모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옷을 잘 입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하며 화장에도 관심이 많고 자신이 예술적 감각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질에도 관심이 있고, 여가활동에도 다른 집단에 비해 적극적이며 가족과 함께 외식이나 소풍을 자주 간다. 모든 면에서 적극적인 생활양식을 가진 새로운 선도자형 주부이다. 반면 전통적인 가정내의 주부의 역할에 대해선 부정적이며 알뜰하게 살림을 하지는 않는다.

인구통계적 특성으로는 30대 연령층(36.2%)과 40대 연령층(33.1%)이 많으며, 20대 연령층(20.9%)도 다른 집단에 비해 많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집단에 비해 20대와 30대 연령층의 젊은 주부가 많다. 학력은 대졸(54.3%)의 고학력층이 많으며 전체 평균학력도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다. 취업주부(39.0%)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많으며 전문직(26.6%)과 전문·기술직(35.9%)의 고급직의 취업주부가 많다. 남편의 학력도 대졸(85.9%)이 가장 많고 전체 평균학력도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고학력층이며, 부부간의 학력 차이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작다. 남편의 직업은 경영·관리직(38.3%)과 전문직(20.4%)이 많다. 수입은 100만원 이상(72.6%)의 고소득층이 많다.

② 餘暇活動型(구성비: 34.91%)

여가활동형은 전통적인 가정내의 주부의 역할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현대적 주부형의 하나이다. 일을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며, 여가활동에 성취추구형 다음으로 적극적이어서 돈보다 여가생활을 원하며 가족과 함께 외식이나 소풍을 즐기며 여가시간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한다. 물질추구형이나 보

수절약형, 소극침체형에 비해 취미, 문화, 스포츠활동에 적극적이다. 반면 물질에는 관심이 낮아 증권이나 부동산 등에는 관심이 없고 상품에 관한 정보에도 관심이 없다. 짜여진 예산하에서 절약하며 알뜰하게 살림을 하지 않으며, 외모에 대한 관심도 낮은 편이다. 이 유형은 생활의 다른 측면보다 특히 여가활동에 관심이 많은 형이다.

인구통계적 특성으로는 40대 연령층(44.9%)이 가장 많고 20대 연령층(10.3%)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적다. 학력은 대졸(41.0%)의 고학력층이 많으며 전체 평균 학력은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성취추구형 다음으로 높다. 취업주부(22.2%)는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중간정도이며, 전문직(26.5%)과 전문·기술직(36.7%)의 고급직의 취업주부가 많다. 남편의 학력은 대졸(50.7%)이 가장 많고 전체 평균학력은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볼 때 고학력층이다. 남편의 직업은 경영·관리직(34.4%)이 가장 많고, 두번째로 사무직(23.4%)이 많다. 성취추구형과 비교해 볼 때 경영·관리직이 가장 많은 것은 같으나 두번째로 많은 직업에서는 차이가 있다. 수입은 50만원~100만원 미만의 수입층(42.9%)이 가장 많고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50.1%)도 성취추구형 다음으로 많다.

③ 物質追求型(구성비 : 18.87%)

물질추구형은 경제적인 측면에 관심이 많아 즐겁고 부를 누리는 생활을 하고자 한다. 재산증식을 위한 증권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집안살림도 알뜰하게 하여 생활비를 절약하고 저축도 열심히 한다. 상품에 대한 정보에도 관심이 많아 상품정보를 비교해 보고 가격할인 광고도 잘 살펴보고 작은 상품이라도 가격을 살펴본다. 또한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고 성취욕도 있으며, 외모에 대한 관심도 많다. 옷을 잘 입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화장도 아름다움을 위해 중요시 한다. 반면 전통적인 가정내의 주부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현대적 주부형의 하나라고 하겠다.

인구통계적 특성으로는 30대 연령층(44.1%)이 가장 많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집단에 비해서 20대와 30대 연령층(59.4%)의 젊은 주부가 많다. 학력은 고졸(47.5%)이 가장 많으며 전체 평균학력은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중간 정도이다. 취업주부(25.2%)는 성취추구형보다는 적지만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중간정도이며 판매·서비스직(53.3%)의 취업주부가 가장 많고.

전문직, 경영·관리직, 전문·기술직, 사무직의 고급직에 43.3%,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의 저급직에 56.6% 취업하고 있다.

남편의 학력은 대졸(42.9%)이 가장 많고 고졸(27.7%)도 많은 편이다. 전체 평균학력은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중간정도이다. 남편의 직업은 사무직(30.8%)이 가장 많다. 수입은 50만원~100만원 미만의 수입층(47.8%)이 가장 많고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41.0%)은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중간정도이다.

④ 保守節約型(구성비 : 11.95%)

보수절약형은 전통적인 가정내 주부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보수적 취향과 습관을 가진 전통적 주부형의 하나이다.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부인은 집에서 살림하는 가정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며 가정내의 결정권은 가장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특별한 일은 못하지만 짜여진 예산하에서만 절약하여 살림을 하고 가사일을 손수함으로써 가계비를 절약하는 알뜰한 주부형이다. 반면 외모, 물질,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며, 자신감도 낮은 편이다.

인구통계적 특성으로는 40대 연령층(41.3%)이 가장 많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집단에 비해 40대와 50대 연령층(53.3%)이 많다. 학력은 고졸(50.0%)이 가장 많으며 대졸(14.5%)은 적은 편이다. 전체 평균학력도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편이다. 취업주부(14.5%)가 없는 편이다. 남편의 학력은 대졸(41.3%)과 고졸(33.3%)이 많은 편이나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볼 때 대졸은 적은 편이며, 고졸이 많은 편이다. 전체 평균학력도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편이다. 부부간의 학력 차이가 큰 편이다. 남편의 직업은 판매·서비스직(29.7%)이 가장 많다. 수입은 50만원~100만원 미만의 수입층(53.9%)이 가장 많고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34.1%)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적은 편이다.

⑤ 消極沈滯型(구성비 : 8.49%)

소극침체형은 전통적인 가정내 주부의 역할에 긍정적인 보수적 취향과 습관을 가진 전통적 주부형의 하나이며, 다른 집단에 비해 외모, 물질, 여가활동 등의 생활 전반에 관심이 아주 낮은 소극적인 생활양식을 가진 형이다.

인구통계적 특성으로는 40대 연령층(52.8%)이 가장 많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집단에 비해 40대와 50대의 연령층(59.3%)이 많다. 학력은 고졸(48.1%)이 가

장 많고 대졸(13.0%)은 적은 편이다. 전체 평균학력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다. 취업주부(16.7%)가 없는 편이다. 남편의 학력은 대졸(50.0%)이 가장 많고 고졸(25.9%)도 많은 편이다. 전체 평균학력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편이다. 부부간의 학력 차이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크다. 남편의 직업은 사무직(26.4%)이 가장 많고, 다음은 판매·서비스직(17.0%)과 생산직(14%)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이 많은 편이다. 수입은 50만원~100만원 미만의 수입층(44.4%)이 가장 많고, 20만원~50만원 미만의 수입층(8.5%)도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편이다.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37.1%)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적은 편이다.

2. 生活樣式類型에 따른 衣服評價基準의 差異

1) 生活樣式類型에 따른 追求利點水準의 衣服評價基準의 差異

의복평가기준의 차원별로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하였다. 다음은 4개의 의복평가기준 차원을 사용하여 생활양식유형들간의 차이를 판별할 경우, 생활양식유형별 집단간의 차이를 가장 잘 판별해 주는 평가기준의 차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생활양식유형별 집단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4개의 의복평가기준 차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판별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分散分析 結果

먼저 생활양식유형별 집단에 따른 추구잇점수준의 의복평가기준의 평균점수와 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 결과를 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우선 각 생활양식유형별로 4개의 의복평가기준 차원들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4>의 평균점수를 비교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실용성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소비자인 주부들이 의복을 구매할때 실용성을 전제로 하여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실용성을 무시한 의복은 우선 구매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현상은 현대 사회의 특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한 가사노동시간의 축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가정부 고용의 어려움은 세탁 및 관리의 용이성을 중시하게 하였고, 사회의 산업화로 인한 활동성의 증가는 역할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의복의 편안함을 중시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집단에서 신분상징성의 점수가 유행성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소비자인 주부들이 의복에서 유행성보다는 품위와 상표의 명성으로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말한다.

4개의 추구잇점수준의 의복평가기준 차원별로 생활양

<표 4>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추구잇점수준의 평가기준 차원의 평균점수와 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 결과

| 의복평가기준 | 생활양식유형 | 성취 추구형 | 여가 활동형 | 물질 추구형 | 보수 절약형 | 소극 침체형 | 분산분석 |
|----------------------------|--------|--------|--------|--------|--------|--------|---------------|
| 신분상징성(품위·상표의 명성) | | 3.1111 | 2.7222 | 2.9600 | 2.6617 | 2.6274 | F값=18.0442*** |
| 던컨테스트* | | A | C | B | C | C | |
| 유행성(유행) | | 2.9480 | 2.5134 | 2.7748 | 2.3515 | 2.1958 | F값=32.0356*** |
| 던컨테스트 | | A | C | B | D | D | |
| 실용성(세탁 및 관리의 용이성·편안함) | | 3.2109 | 3.4642 | 3.4864 | 3.6436 | 3.6439 | F값=14.3665*** |
| 던컨테스트 | | C | B | B | A | A | |
| 경제성(내구성·착용 용도의 다양성·경제적 가격) | | 2.7283 | 2.8746 | 2.9321 | 3.0451 | 3.111 | F값=11.8187*** |
| 던컨테스트 | | D | C | B/C | A/B | A | |

a : 던컨테스트 결과 $P \leq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간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으며, 문자의 순서는 점수의 크기순서와 같다.

*** : $P \leq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식유형별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의 결과를 보면 신분상징성의 경우는 $P \leq 0.001$ 수준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취추구형이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두번째가 물질추구형으로 나타났고, 여가활동형과 보수절약형, 소극침체형은 낮게 나타났으며 이 3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성의 경우는 $P \leq 0.001$ 수준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취추구형이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두번째가 물질추구형, 세번째가 여가활동형으로 나타났다. 보수절약형과 소극침체형은 낮게 나타났으며 이 2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이차옥¹⁷⁾과 김경미¹⁸⁾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차옥¹⁷⁾의 연구결과를 보면 보수절약형이 다른 유형의 집단보다 유행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김경미¹⁸⁾의 연구결과에서도 소극침체형이 유행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성의 경우는 $P \leq 0.001$ 수준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소극침체형과 보수절약형이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두번째가 물질추구형과 여가활동형으로 나타났으며, 성취추구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제성의 경우는 $P \leq 0.001$ 수준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소극침체형과 보수절약형이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물질추구형과 여가활동형으로 나타났으며, 성취추구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성취추구형은 다른 집단에 비해 유행성과 신분상징성의 점수가 높게, 실용성과 경제성의 점수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물질추구형은 성취추구형 다음으로 유행성과 신분상징성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취추구형과 다른점은 실용성과 경제성의 점수가 성취추구형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성취추구형은 Jenkin⁵⁾이 언급하고 있는 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실용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유행지향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물질추구형은 미와 실용성 모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실용적 심미추구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절약형과 소극침체형은 실용성과 경제성의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유행성과 신분상징성의 점수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2집단은 Jenkin⁵⁾이 언급하고 있는 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실용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실용성지향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활동형은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신분상징성

과 유행성, 실용성, 경제성의 점수가 모두 중간이나 중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추구및점수준의 의복평가기준에 뚜렷한 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다른 집단보다 신분상징성을 더 중요시하는 집단인 성취추구형과 물질추구형은 유행성도 중요시하며, 다른 집단보다 신분상징성을 중요시하지 않는 집단인 보수절약형과 소극침체형은 유행성도 중요시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행성과 신분상징성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의복에서 품위와 상표의 명성으로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소비자는 어느 정도 유행 감각이 가미된 상품을 선호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2) 判別分析 結果

앞의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 결과를 보면 생활양식유형에 따라 4개나 혹은 3개의 의복평가기준 차원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특히 어떤 평가기준 차원이 집단간의 차이를 가장 잘 판별해 주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생활양식유형들간의 차이를 가장 잘 판별해 주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하였다. 판별분석 방법은 우선 생활양식유형들간의 차이를 2집단씩 비교하기 위하여 5개 집단을 2집단씩 짝을 지어 종속변인으로 하고 4개의 의복평가 기준의 차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10번의 판별분석을 하였다^{註3)}.

판별분석을 한 결과인 판별함수의 명중률은 의미있게 나타났으므로, 표준화된 판별함수계수를 보면 다음의 〈표 5〉과 같다. 〈표 5〉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취추구형과 다른 집단들과 비교해 보면, 성취추구형과 여가활동형의 경우는 던컨테스트 결과 〈표 4〉에서 4개의 평가기준 차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2집단간의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판별력이 큰 것은 유행성과 신분상징성으로 나타났고, 실용성도 판별력이 약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성은 판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집단간의 평가기준 차원에 대한 평균점수〈표 4〉를 비교해 볼 때 가장 판별력이 큰 유행성과 신분상징성의 경우는 성취추구형이 여가활동형보다 높게 나타났고, 실용성의 경우는 여가활동

註3) 5개의 집단을 모두 종속변인으로 하여 판별분석할 경우 2집단간의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판별변인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2집단씩 짝을 지어 분석하였다.

동형이 성취추구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취추구형과 물질추구형의 경우는 던컨테스트 결과 <표 4>에서 4개의 평가기준 차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2집단간의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판별력이 큰 것은 실용성으로 나타났고, 두번째는 경제성으로 나타났다. 실용성과 경제성에 대한 2집단간의 평균점수 <표 4>를 비교해 보면 물질추구형이 성취추구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취추구형과 보수절약형, 소극침체형의 경우도 던컨테스트 결과 <표 4>에서 4개의 평가기준 차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2집단간의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판별력이 큰 것은 유행성으로 나타났다. 유행성에 대한 두 집단간의 평균점수 <표 4>를 비교해 보면 성취추구형이 보수절약형이나 소극침체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두번째는 실용성과 경제성이 판별력이 약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수절약형과 소극침체형이 성취추구형보다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성취추구형과 (물질추구형 집단을 제외한) 다른 집단들과의 비교에서는 유행성이 가장 판별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성취추구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행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추구형과의 비교에서는 실용성이 가장 판별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볼 때 물질추구형이 성취추구형보다 실용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형과 다른 4집단들과 비교해 보면, 여가활동형과 성취추구형은 앞에서 비교해 보았으므로 물질추구형과 비교해 보면 신분상징성이 가장 판별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번째는 유행성으로 나타났다. 경제성과 실용성도 판별력이 약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던컨테스트 결과 <표 4>를 보면 신분상징성과 유행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경제성과 실용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경제성과 실용성의 판별력은 고려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본다. 판별력이 큰 신분상징성과 유행성에 대한 2집단간의 평균점수 <표 4>를 비교해 보면 물질추구형이 여가활동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형과 보수절약형의 경우는 던컨테스트 결과 <표 4>에서는 유행성, 실용성, 경제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판별분석 결과에서는 신분상징성이 가장 판별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두번째는 유행

성, 세번째는 경제성으로 나타났으며, 실용성은 판별력이 약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던컨테스트 결과를 보면 신분상징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유행성과 경제성을 판별력이 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유행성과 경제성에 대한 평균점수 <표 4>를 비교해 보면 유행성의 점수는 여가활동형이 보수절약형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경제성의 점수는 보수절약형이 여가활동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형과 소극침체형의 경우도 던컨테스트 결과 <표 4>에서는 유행성, 실용성, 경제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판별분석 결과에서는 유행성이 가장 판별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번째는 경제성, 세번째는 신분상징성으로 나타났다. 실용성은 판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던컨테스트 결과를 보면 신분상징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신분상징성의 판별력은 고려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장 판별력이 큰 유행성의 평균점수 <표 4>를 비교해 보면 여가활동형이 보수절약형과 소극침체형보다 높게 나타났고, 두번째로 판별력이 큰 경제성의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여가활동형이 보수절약형과 소극침체형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여가활동형과 성취추구형 및 물질추구형과의 비교에서는 유행성과 신분상징성이 가장 판별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여가활동형이 성취추구형이나 물질추구형보다 유행성과 신분상징성을 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절약형과 소극침체형과의 비교에서도 유행성이 가장 판별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두번째는 경제성으로 나타났으나 평균점수를 비교해 볼 때 여가활동형이 보수절약형이나 소극침체형보다 유행성을 더 중요시하는 반면 경제성은 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가활동형이 보수절약형이나 소극침체형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물질추구형과 다른 4집단들과 비교해 보면, 성취추구형과 여가활동형은 앞에서 비교하였으므로 보수절약형, 소극침체형과 비교해 볼 경우, 던컨테스트 결과 <표 4>를 보면 보수절약형과의 비교에서는 신분상징성, 유행성, 실용성에서, 소극침체형과의 비교에서는 4개의 평가기준 차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판별분석 결과에서는 유행성이 가장 판별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성에 대한 2집단간의 평균점수 <표 4>를

〈표 5〉 2개의 생활양식유형들간의 추구위접수준의 평가기준 차원의 표준화된 판별함수계수

| 성취 추구형* | 여가 활동형 | | 물질 추구형 | | 보수 절약형 | | 소극 침체형 | |
|---------|---------|--------|--------|--------|---------|--------|---------|--------|
| | 유 행 성 | 0.5379 | 실 용 성 | 0.7439 | 유 행 성 | 0.7473 | 유 행 성 | 0.8112 |
| 신분 상징성 | 0.5161 | 경 제 성 | 0.3915 | 실 용 성 | -0.2719 | 경 제 성 | -0.2252 | |
| 실 용 성 | -0.1965 | | | 경 제 성 | -0.2710 | 신분 상징성 | 0.1893 | |

| 여가 활동형* | 물질 추구형 | | 보수 절약형 | | 소극 침체형 | |
|---------|--------|--------|---------|--------|--------|---------|
| | 신분 상징성 | 0.6348 | 신분 상징성 | 0.7246 | 유 행 성 | -0.9454 |
| 유 행 성 | 0.5808 | 유 행 성 | -0.6793 | 경 제 성 | 0.5549 | |
| 경 제 성 | 0.3726 | 경 제 성 | 0.6437 | 신분 상징성 | 0.4777 | |
| 실 용 성 | 0.3222 | 실 용 성 | 0.3313 | | | |

| 물질 추구형* | 보수 절약형 | | 소극 침체형 | |
|---------|--------|--------|--------|--------|
| | 유 행 성 | 1.0000 | 유 행 성 | 1.0778 |
| | | 실 용 성 | 0.1916 | |

| 보수 절약형* | 소극 침체형 | |
|---------|--------|--------|
| | 유 행 성 | 1.0000 |

* : 성취추구형과 나머지 4집단과의 판별함수계수와 여가활동형과 나머지 3집단과의 판별함수계수, 물질추구형과 나머지 2집단과의 판별함수계수, 보수절약형과 소극침체형과의 판별함수계수를 표시한 것이다. 표준화된 판별함수계수의 숫자가 클수록 판별력이 큰 변인으로 해석한다.

비교해 보면 물질추구형이 보수절약형과 소극침체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물질추구형과 보수절약형 및 소극침체형과의 비교에서는 유행성이 가장 판별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물질추구형이 보수절약형이나 소극침체형보다 유행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형과의 비교에서는 신분상징성과 유행성이 판별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를 비교해 볼 때 물질추구형이 여가활동형보다 신분상징성과 유행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취추구형과의 비교에서 실용성과 경제성이 판별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를 비교해 볼 때 물질추구형이 성취추구형보다 실용성과 경제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절약형과 다른 4집단들과 비교해 볼 성취추구형과 여가활동형 및 물질추구형과는 앞에서 비교하였으므로, 소극침체형과 비교해 보면, 유행성이 가장 판별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던컨테스트 결과 <표 4>를 보면 유행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판별함수의 명중률도 낮으므로 유행성의 판별력은 고려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보수절약형은 다른 집단들과의 비교에서 유행성이 가장 판별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보수절약형은 성취추구형, 여가활동형, 물질추구형보다 유행성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극침체형과의 비교에서는 판별력이 있는 평가기준 차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수절약형과 소극침체형은 평가기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집단들이라고 하겠다.

소극침체형은 앞에서 다른 4집단들과 비교한 결과를 볼 때 다른 집단들과의 비교에서 유행성이 가장 판별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행성의 평균점수<표 4>를 비교해 보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다른 집단에 비해 유행성을 가장 중요시하지 않는 집단이라고 하겠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5개의 생활양식유형들 사이에 차이를 가장 뚜렷이 나타내는 것이 4개의 의복평가기준 차원중 어떤 차원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5개의 생활양식유형별 집단들을 모두 종속변인으로 하고, 4개의 의복평가기준 차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판별분석하였다. 그 결과 판별함수가 4개 나타났는데 그중 판별하는데 기여

도가 높은 판별함수 1(전체변량 : 81.85%)과 판별함수 2(전체변량 : 13.70%)의 표준화된 판별함수의 계수를 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의 결과에서 판별함수 1, 2의 표준화된 판별함수 계수를 보면 가장 기여도가 높은 판별함수 1에서는 유행성의 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번째로 기여도가 높은 판별함수 2에서는 신분상징성의 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번째가 경제성의 계수로 나타났으므로 유행성이 판별력이 가장 크고, 두번째가 신분상징성과 경제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앞에서 생활양식유형들을 2집단씩 비교한 결과와 같다고 하겠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생활양식유형에 따라 추구잇점수준의 의복평가기준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표적고객에 따라 추구잇점의 특성에 차이가 나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6> 5개의 생활양식유형들간의 추구잇점수준의 평가기준 차원의 표준화된 판별함수계수

| 판별 함수 1 | | 판별 함수 2 | |
|---------|---------|---------|--------|
| 유행성 | 0.7489 | 신분상징성 | 0.7769 |
| 신분상징성 | 0.1980 | 경제성 | 0.6801 |
| 실용성 | -0.1895 | 실용성 | 0.4083 |
| 경제성 | -0.1435 | 유행성 | 0.0438 |

2) 生活樣式類型에 따른 構成要素水準의 衣服評價基準의 差異

생활양식유형별로 구성요소수준의 의복평가기준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의 결과에서 보면 생활양식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기준은 스타일과, 재단과 재봉으로 성취추구형과 물질추구형이 여가활동형과 보수절약형, 소극침체형보다 스타일을 더 중요시하는 반면 보수절약형과 소극침체형은 성취추구형과 여가활동형, 물질추구형보다 재단과 재봉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의 색채, 무늬, 옷감, 부속품에서는 생활양식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구성요소수준의 평가기준은 생활양식유형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다음은 각 집단에서 6개의 구성요소수준의 평가기준들간의 중요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생활양식유형별로 6개의 구성요소수준의 평가기준을 2개씩 쌍체비교 t-검증을 하여 살펴 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의 평균점수를 보면 성취추구형과 여가활동형, 물질추구형 집단에서 모두 스타일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색채, 옷감, 무늬, 재단과 재봉, 부속품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평가기준들간의 쌍체비교 t-검증에

<표 7>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구성요소수준의 평가기준의 평균점수와 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 결과

| 생활양식유형 평가기준 | 성취 추구형 | 여가 활동형 | 물질 추구형 | 보수 절약형 | 소극 침체형 | 분산분석 |
|--------------------|--------|--------|--------|--------|--------|--------------|
| 스타일 | 4.2025 | 3.7189 | 4.0593 | 3.7568 | 3.5094 | F값=6.6934*** |
| 던컨테스트 ^a | A | B | A | B | C | |
| 색채 | 3.4049 | 3.1475 | 3.2797 | 3.1081 | 2.9811 | |
| 옷감 | 2.5767 | 2.8295 | 2.6864 | 2.9595 | 2.8868 | 유의차 없음 |
| 무늬 | 2.1840 | 2.2442 | 2.2792 | 2.1892 | 2.2453 | 유의차 없음 |
| 재단과 재봉 | 1.5460 | 1.9585 | 1.7119 | 2.0541 | 2.1698 | F값=3.7255*** |
| 던컨테스트 | B | B | B | A | A | |
| 부속품 | 1.0859 | 1.1014 | 1.0000 | 0.9324 | 1.2075 | 유의차 없음 |

a : 던컨테스트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간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으며, 문자의 순서는 점수의 크기 순서와 같다.

*** :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절약형과 소극침체형의 집단에서는 쌍체비교 t-검증결과, 색채와 옷감 사이와, 무늬와 재단과 재봉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성취추구형, 여가활동형, 물질추구형에서나 마찬가지로 스타일의 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이 색채, 옷감, 무늬, 재단과 재봉, 부속품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모든 생활양식유형별 집단들이 스타일을 가장 중요시하고, 다음은 색채, 옷감, 무늬, 재단과 재봉, 부속품의 순으로 중요시하고, 보수절약형과 소극침체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재단과 재봉을 약간 더 중요시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생활양식유형에 따라 추구잇점수준의 의복평가기준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앞의 결과로 볼 때, 추구잇점수준의 의복평가기준에 차이가 있어도 구성요소수준의 의복평가기준들간의 중요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집단에서 구성요소수준의 의복평가기준들간의 중요도의 순위가 같을지라

도 추구잇점에 따라 스타일, 색채, 무늬, 옷감, 재단과 재봉, 부속품 등의 중요시하는 측면은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유행을 중요시하는 집단은 스타일이나 색채, 옷감이 유행하는 것인가를 중요시할 것이며,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집단은 스타일이나 색채, 옷감 등이 실용적인가를 중요시할 것이다. 이것은 김미영⁴⁾의 이전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복평가기준의 이론적 틀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런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에서 스타일과 색채, 무늬 등을 중요시하면 의복의 미를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옷감과, 재단과 재봉, 부속품 등을 중요시하면 의복의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부여주고 있다.

3) 生活樣式類型에 따른 構成要素水準의 衣服評價基準別 選好 特性의 差異

(1) 生活樣式類型에 따른 衣服類型 選好度의 差異

연구결과를 볼 때 소극침체형만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회적 모임시의 외출복으로 정장 투피스를 가장 선호한

<표 8> 생활양식유형별 구성요소수준의 평가기준의 평균점수와 t-검증 결과

| 생활양식유형 평가기준 | 스타일 | 색채 | 옷감 | 무늬 | 재단과 재봉 | 부속품 |
|----------------|---|--------|--------|--------|--------|--------|
| 성취추구형 | 4.2025 | 3.4049 | 2.5767 | 2.1840 | 1.5460 | 1.0859 |
| t-검증 | t값=8.03*** t값=5.44*** t값=2.32** t값=3.63*** t값=3.38*** | | | | | |
| 여가활동형 | 3.7189 | 3.1475 | 2.8295 | 2.2442 | 1.9585 | 1.1014 |
| t-검증 | t값=6.16*** t값=5.44** t값=4.28*** t값=1.83* t값=7.10*** | | | | | |
| 물질추구형 | 4.0593 | 3.2797 | 2.6864 | 2.2797 | 1.7119 | 1.0000 |
| t-검증 | t값=7.06*** t값=3.53*** t값=2.19** t값=2.79** t값=4.19*** | | | | | |
| 보수절약형 | 3.7568 | 3.1081 | 2.9595 | 2.1892 | 2.0541 | 0.9324 |
| t-검증 | t값=4.30*** 유의차 없음 t값=3.68*** 유의차 없음 t값=5.07*** | | | | | |
| 소극침체형 | 3.5094 | 2.9811 | 2.8868 | 2.2453 | 2.1698 | 1.2075 |
| t-검증 | t값=2.46* 유의차 없음 t값=2.67** 유의차 없음 t값=3.47*** | | | | | |

* :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고 하겠다. 생활양식유형별로 선호하는 의복유형을 보면 성취추구형과 여가활동형은 정장류를 선호하고, 물질추구형은 정장류를 선호하되 다른 집단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의복을 고루 선호하고, 보수절약형과 소극침체형은 다른 집단에 비해 분리형을 선호하며, 특히 소극침체형은 간단한 단품류를 선호한다고 하겠다. 이것은 앞의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추구잇점수준의 의복평가기준의 차이에 관한 결과에서 성취추구형은 다른 집단에 비해 신분상징성을 중요시한다고 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다른 유형의 의복보다 정장류가 신분상징성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물질추구형은 다른 집단에 비해 유행성과 신분상징성, 실용성, 경제성을 고루 중요시한다고 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여러 유형의 의복에서 신분상징성과 실용성, 경제성의 의미를 고루 찾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반면 보수절약형과 소극침체형은 다른 집단에 비해 실용성과 경제성을 중요시한다고 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분리형이나 단품류가 실용적이며, 경제적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2) 生活樣式類型에 따른 色差別 選好度の 差異

연구결과를 볼 때 모든 생활양식유형에서 따뜻한, 산뜻한, 가벼운 밝은 색감을 선호한다고 하겠으며, 단지 수수한-화려한 색감의 경우만 성취추구형은 화려한 쪽의 색감을 선호하고, 소극침체형은 수수한 색감을 선호하며, 여가활동형과, 물질추구형, 보수절약형은 수수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중간쪽의 색감을 선호한다고 하겠다.

(3) 生活樣式類型에 따른 纖維類型別 選好度の 差異

연구결과에 따라 생활양식유형별로 섬유유형에 따른 선호도를 비교해 보면, 성취추구형은 천연섬유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취추구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신분상징성을 중요시한다고 한 앞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일반적으로 고가이며 고급의 섬유인 천연섬유가 신분상징성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여가활동형과 물질추구형은 천연섬유와 함께 천연섬유와 화학섬유의 혼방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보수절약형과 소극침체형은 천연섬유와 화학섬유의 혼방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화학섬유의 경우도 다른 집단에 비해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보수절약형과 소극침체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실용성과 경제성을 중요시한다고 한 앞의 결과로 비루어 보아 화학섬유나, 천연섬유와 화학섬유의 혼방이 실용적이고, 경

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4) 生活樣式類型에 따른 니트류 選好度の 差異

연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집단에서 니트의 구매율이 낮게 나타났으나 성취추구형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성취추구형은 다른 집단에 비해 유행성을 중요시한다고 한 앞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최근에 니트류가 유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5) 生活樣式類型에 따른 무늬類型別 選好度の 差異

연구결과에 따라 생활양식유형별로 무늬유형에 따른 선호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무늬 없는 옷을 선호한다고 하겠으며, 무늬가 있는 경우는 작은 무늬를 선호하며, 무늬의 종류로는 기하학적 무늬를 가장 선호하고, 다음이 추상적 무늬와 꽃무늬이며, 전통적 무늬는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특히 성취추구형은 다른 집단에 비해 추상적 무늬를 더 선호한다고 하겠으며, 여가활동형은 다른 집단에 비해 꽃무늬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런 결과는 사회적 모임시의 의복을 구입할 경우에 무늬 없는 옷을 선호하며, 무늬가 있을 경우는 작은 무늬를 선호하며, 무늬의 종류로는 기하적 무늬를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V. 結論 및 提言

1. 結 論

주부의 생활양식유형은 여가활용성, 외모지향성, 지신감지향성, 전통적 가정지향성에 대한 성향 정도에 따라 성취추구형, 여가활동형, 물질추구형, 보수절약형, 소극침체형으로 분류되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성취추구형과 물질추구형은 고학력이며, 자심감을 갖고 생활하는 현대적인 주부형으로 경제력도 있고, 의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의복시장에 구매력이 큰 표적집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생활양식유형별 의복평가기준의 차이를 보면 생활양식유형에 따라 4개의 추구잇점수준의 평가기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중 생활양식유형들간의 차이를 가장 잘 판별해 주는 것이 유행성이었으며, 두번째가 신분상징성과 경제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의류관련업체에서는 소비자의 생활양식유형에 따라 평가기준에 차이를 두어 상품기획을 하여할 것이며 특히 집단간의 차이를 가장 잘 판별해 주는 평가기준의 차이를 밝힌 결과에 따라 표적고객간의 추구잇점에 차이

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양식유형별로 평가기준들간의 중요도의 차이를 보면 집단간에 점수의 차이는 있어도 모든 집단에서 실용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신분상징성을 유행성보다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소비자인 주부들이 실용적인 의복을 전제로 선택하고 있으며, 의복에서 유행성보다는 품위와 상표의 명성으로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신분상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유행성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유행성과 신분상징성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의류관련 업체에선 상품기획시 우선 실용적인 의복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며, 상품에서 품위와 상표의 명성으로 신분상징적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할 경우에는 유행성을 가미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의복평가기준의 차이에 관한 결과를 구성요소 수준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집단에서 스타일을 가장 중요시하고, 다음은 색채, 옷감, 무늬, 재단과 재봉, 부속품의 순으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집단의 추구잇점수준의 평가기준에 관계없이 스타일, 색채, 옷감 등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적집단의 추구잇점에 따라, 구성요소수준의 평가기준의 중요시하는 측면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의복평가기준에 관한 연구는 추구잇점수준과 구성요소수준을 분리시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결과는 김미영⁴⁾이 그의 연구에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는 의복평가기준의 이론적 틀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스타일과 색채, 옷감에 중점을 두어 상품기획을 해야 할 것이며 이때 표적집단의 추구잇점에 따라 추구잇점을 충족시켜주는 스타일과 색채의 디자인과 옷감의 선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後續 研究를 위한 提言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생활양식유형에 따라 구성요소수준의 평가기준별 선호 특성의 차이를 밝힌 결과는 대략적인 특성을 밝힌 것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구성요소수준의 특성을 좀더 자세히 구분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착용하는 의복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착용상황에 따른 의복평가기준의 차이

를 밝혀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Engel, J.F. and Blackwell, R.D., *Consumer Behavior*, 4th ed., New York: The dryden press, p 687, (1982)
- 2) Cassil, N.L., *The Influence of Female Consumer's Employment Orientation on Life Style and Evaluative Criteria of Apparel*,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Tennessee, (1985)
- 3) 손미영, 여성기성복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라이프스타일변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4) 김미영, 의복평가기준의 이론적 틀에 관한 연구, 의류학회지, 15(3), pp 321-334, (1991)
- 5) Jenkin, M.C., *Clothing and Textile Evaluative Criteria: Basis for Benefit Segmentation and Reflection of Underlying Values*, Unpublished Ph.D. thesis, Ohio State University, (1973)
- 6) Blackwell, R.D. & Hilliker, J.A.S., *Clothing Decision: A Decision Process Analysis of Focused Group Interview*, *Advances in Consumer Reserch*, 5, pp 743-749, (1978)
- 7) Stemm, F.A., *Clothing Attitudes and Evaluative Criteria Used by Employment Women Differing in Feminine Role Orientation and Work Orientation: Emphasis on the Single-Again Adul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1980)
- 8) 장연화, 의복의 구매의사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9) Lazer, W., *Marketing Management: A System Perspectiv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1), in Lazer, W., *Life Style Concepts and Marketing In S.A. Geryser, Toward Scientific Marketing*, A.M.A., pp 130-139, (1963)
- 10) Moore, D.G., *Life Style in Mobile Suburbia*, In Greyser, S.A., *Toward Scientific Marketing*, Chicago: A.M.A., pp 151-163. (1963)
- 11) Levy, S.J., *Symbolism and Life Style*, in S.A Greyser, *Toward Scientific Marketing*, Chicago: A. M.A., pp 140-145, (1963)
- 12) Engel, J.F. and Blackwell, R.D., op. cit., p 188, (1982)
- 13) 김동기, 현대 마아케팅원론, 박영사, p176, (1984)
- 14) Reynolds, F.D., Crask, M.R. and Wells, W.D., *The Modern Feminine Life Style*, *Journal of Marketing*, 41, pp 38-45, (July, 1977)

- 15) Douglas, S.P. and Urban, C.D., Life Style Analysis to Profile Women in International Markets, *Journal of Marketing*, 41, pp 46-54, (July, 1977)
- 16) Venkatesh, A., Changing Roles of Women-A Life Style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pp 189-197, (Sep., 1980)
- 17) 이차욱, 우리 나라 도시거주 가정주부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 18) 김경미,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유형과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19) 박선영, 주부의 라이프스타일유형분석과 관련변인과의 관계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20) Stanton, W.J., *Fundamentals of Marketing*, McGraw-Hill, p 105, (1984)
- 21) Sontag, M.S., Schlater, J.D.;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of a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 pp 1-8, (1982)
- 22) Compton, N.H., 'Body-Image Boundaries in Relation to Clothing Fabric and Design Preference for Group of Hospitalized Psychotic Women, *Journal of Home Economics*, 56, pp 40-45, (January, 1964)
- 23) Grubb, E.L., Grathwohl, H.L., Consumer Self-Concept, Symbolism and Market Behavior: A Theoretical Approach, *Journal of Marketing*, 31, pp 22-27, (Oct., 1967)
- 24) Dolich, I.J., Congruence relationships between Self-Images and Product Brand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6, pp 80-84, (Feb., 1969)
- 25) Ballenger, D.N., Steinberg, E., Stantion, W.W., The Congruence of Store Images and Self-Image, *Journal of Retailing*, 52, pp 17-32, (Spring, 1976)
- 26) Sirgy, M.J., Self-Concept in Consumer Behavior: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 pp 290-294, (Dec., 1982)
- 27) 이경순, 성인남자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28) 양명희, 청소년기 근로여성의 의복선택행동과 자아개념의 상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29) 김소연, 조필교, 성인여성의 의복구매행동과 관련변인연구-자아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2(2), pp 159-169, (1988)
- 30) 원 선, 의복변인에 의한 시장세분화 및 라이프스타일 변인과의 관련연구-20~30대 여성의복시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31) 손미영, 전제서, pp 112-114
- 32) Engel, J.F. and Blackwell, R.D., op. cit., p 687
- 33) Silberman, C.E., Identity Crisis in the Consumer Market, (1971), in M. Kefgen & P. Touchie-Specht,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New York: Macmillan, p 30, (1976)
- 34) Kefgen, M., & Touchie-Specht, P.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2nd ed., New York: Macmillan (1976)
- 35) Jarnow, J.A., & Judelle, B., *Inside the Fashion Business*,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4)
- 36) _____, SAS Introductory Guide, revised ed., SAS Institute Inc., (1983)
- 37) _____, User's Guide Spssx, 2n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86)